

“최숙현 사태 다시 없도록... 인권침해 조사”

“북한 女탁구, 내년 올림픽서 힘 발휘”

국제탁구연맹 집중 조명

국제탁구연맹(ITTF)이 2021년을 바라보는 북한 여자 탁구를 집중 조명했다.

ITTF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5번의 세계선수권 은메달과 4번의 3위를 차지한 북한 여자 단체전의 성공은 그리 낮은 일이 아니다”라면서 이들의 전력을 짚었다.

ITTF는 또 “2020년 세계선수권과 올림픽이 1년 뒤로 밀리면서 북한은 내년 힘을 보여주려 한다”고 보냈다.

쇠퇴기를 겪고 있는 남자와 달리 북한 여자 탁구는 여전히 국제 경쟁력을 유지 중이다.

특히 김송이는 북한 여자 탁구의 간판으로 한국팬들에게도 잘 알려졌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대회를 통해 올림픽 데뷔전을 치른 김송이는 강호들을 줄줄이 쓰러뜨리고 개인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금도 북한 전력의 핵심이다.

ITTF는 “김송이는 최근 세계랭킹 52위까지 올랐다. 북한 선수 중 가장 랭킹이 높은 선수”라면서 “차호심도 각광을 받고 있다. 2018년 대전에서 치러진 코리아오픈에서 (한국의) 장우진과 금메달을 합작해 한반도에 큰 의미를 선사했다”고 적었다.

ITTF는 북한이 두 선수와 비교적 덜 알려진 김남해, 편송경 등을 더해 팀을 꾸릴 것으로 내다보면서 “내년 세계선수권과 올림픽에서 잠재력을 최대한 뽐내길 원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세계탁구선수권은 내년 2월28일부터 3월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북한은 엔트리 마감 전까지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ITTF는 출전 의사만 있다면 충분히 배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뉴시스

손흥민, 아스널 팬에 인종차별 당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손흥민(28·토트넘)이 북러던더비 라이벌 아스널 팬으로부터 인종차별을 당해 논란이다.

손흥민은 지난 13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스널과의 2019~2020시즌 EPL 35라운드 홈 경기에서 1골 1도움으로 2-1 역전승을 이끌었다.

아스널전 팽활약으로 손흥민은 10골·10도움을 기록하며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EPL ‘10-10클럽’ 가입에 성공했다. 그러나 손흥민의 활약에 아스널 팬들은 분노했다. 특히 일부 팬들은 인종차별적인 발언까지 쏟아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아스널 팬 네트워크 ‘AFTV’는 북러던더비 당일 7명의 패널이 모여 경기를 실시간 중계했다.

아스널의 선제골 이후 손흥민이 동점골과 토비 알더베일트의 역전골을 돕고 후반 추가시간 에릭 라멜라와 교체되자 패널 중 한 명이 “DVD 나간다(DVD’s going off)”라며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다. /뉴시스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체육인 복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진 체육인, 언제까지 눈물을 흘려야 하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최윤희 문체부 차관, 국회 체육인 복지법 공청회서

“제보 처리 과정의 잘못 밝히고 엄중 처벌할 것”

이기흥 “선수를 돌보지 못한 무거운 책임 통감”

15일 국회에서 체육인들의 은퇴 후 삶을 지원하기 위한 체육인 복지법 공청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체육인 복지법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고 최숙현 사태에 대해 사과(故) 최숙현 선수와 같은 사건이 재발해선 안 된다며 인권 침해 실태 전수조사 등 대책 수립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동 미래통합당 의원과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체육인 복지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서병수, 송언석 의원 등 당 관계자뿐 아니라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신치용 대한체육회 선수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와 체육단체에서는 체육인 복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고 최숙현 선수가 겪은 것 같은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것이 복지법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최윤희 차관은 “얼마 전 발생한 비극적 사태는 우리나라 체육계의 외연이 커졌지만 내면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저는 고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를 찾아뵙고 약속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선수가 희생되는 일

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제가 단장으로 있는 문체부 특별조사단을 통해 고 최숙현 선수의 제보 처리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됐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철저히 밝히고 엄중 처벌하겠다”며 “합숙소 이용실태 등 체육계 인권침해실태 전수조사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포츠 유니온을 중심으로 체육인들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보호 체계를 제대로 작동하게 하겠다”며 “진정한 복지는 인권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실현될 수 있다. 체육계 문화를 개혁해 선수들이 운동에 매진할 환경

만드는 게 체육인 복지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도 신치용 선수총장을 통해 전한 축사에서 “얼마 전 우리의 소중한 선수를 떠나보내는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다”며 “대한체육 100주년이라는 거대한 성취의 이면에 아직 스포츠 폭력 가혹행위로 고통 받는 선수들이 있다는 것이 몹시 처참하고 슬픈 일이다. 선수를 돌보지 못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고 최숙현 선수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이어 “가혹행위, 폭행 등 낡은 관습에서 벗어

나 선수들 스스로 즐기는 가운데 훈련하며 이뤄낸 성과가 스포츠를 더 가치 있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스포츠 새 시대를 만들 때 스포츠 인권을 전면 개선하고 제도적 측면에서 놓치는 부분 없는지 세심히 살펴야 한다. 그것이 체육인 복지법이 절실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체육회는 더 이상 이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실질적 재발방지를 마련해 대한민국 스포츠의 밝은 내일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신유진, 원반던지기 한국 신기록

최근 경북 예천 '전국 중학교 육상대회' 서 51.36m 기록 이리공고 육상부, 강원 정선서 '한국 U-20대회' 등서 '두각'

이리공고등학교(교장 김기욱) 육상부는 최근 강원도 정선에서 열린 한국 U-20대회 등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신유진의 원반던지기 1위(통신과3, 여자부 대회 신기록)를 비롯해 여자부 해머던지기 1위(홍승연, 통신과3), 남자부 해머던지기 2위(홍중호, 통신과3), 남자부 원반던지기 2위(기

계과3,내인성) 등의 성적을 거뒀다. 또한 함께 열린 제11회 한국U18 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최하나(건축과2) 학생이 여자부 포환던지기과 여자부 해머던지기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신유진(통신과 3)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경북 예천에서 치러진 제49

회 전국중고등학교 육상경기대회에서 51.36m로 여자부 한국 신기록을 달성했다.

신유진 선수는 이어 예천에서 열린 제49회 중별 육상경기대회(7월9일~13일)에서 다시 한 번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신기록 행진을 이어갔다. 이 대회에서 남자부 해머던지기 1위(홍중호, 통신과3), 여자부 해머던지기 1위(홍승연, 통신과3), 여자부 포환던지기 1위(최하나, 건축과2) 등의 성과를 올렸다.

이리공고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훈련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학생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좋은 성과를 거둬 지도 선생님들과 학교에 큰 영광을 안겼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펜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